은혜와 진리 소식

2025년 1월 1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제191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오랜 세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생활을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 전 경 옥 -

저는 어릴 때 어린이성경학교에 출석한 후로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큰딸을 낳은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교회 전도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심방을 오셨습니다. 매우 정감이 가는 얼굴로 저를 대하시며 성경책을 펼쳐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는 이 성경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하여 행하면서 남편과 여섯 달 된 딸을 데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그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동안 주님의 품을 떠나서 생활한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1983년 2월 1일,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에 경기도 과천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딸을 낳은 지 5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과천성전에서 예배중심 말씀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크고 넓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융자받은 분양대금을 갚아 나가느라 한동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아이를 품에 안고 신문을 읽는데 첫 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첫 회 공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길 합격하면 자격증만 대여해도 큰 수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밤이나 낮이나 공부에 매달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는 자격증을 남에게 대여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일임을 알고 성도로서 그럴 수 없어 장롱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둔 이종 동생이 전셋집을 얻어야 한다며 자격증이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상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실이 마침 임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모로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권하기를, 우리가 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내가 먼저 몇 달 경험을 쌓은 후에 당신이 회사에서 정년퇴임을 하면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그 당시에 비교적 호황이었고 저의 적성에도 잘 맞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오랜 시간 이 부동산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동산 거래가 비교적 한산한 어느 겨울날, 교회당 1층 로비에 우리 교회 성가대학의 제1회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았을 때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므로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양성전에서 지휘하시는 지휘자님이 첫 시간 강의를 하셨는데, 단조로 피아노 연주를 하면 슬픈 곡조의 소리가 나오고 장조로 연주하면 명랑한 곡조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음악에 문외한이나 다름없던 저에게 무척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성가대학에서 교회음악을 공부한지 두 달이 되었을 때부터 성가대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게 되니 한없이 즐겁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막내딸을 성가대석 맨 뒷자리에 눕혀놓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싶어서 돌아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부터 새벽기도회에도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잠귀가 유독 밝아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일어나는 막내딸을 무릎에 눕혀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기억하는 어느 권사님은 저의 막내딸이 어린 시절에 그처럼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여 장성한 지금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가대에서 봉사한지 어느덧 4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일예배 성가대, 수요저녁예배 성가대, 금요기도회 성가대에서 봉사하던 중에 권사 직분을 받고 총무로 권사회를 섬기게 되어 주일에는 성가대 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예 성가대 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저에게 크나큰 은혜요 복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니 안타깝고 마음이 자못 허전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코로나19 상황이 엔데믹이 되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수요1부예배 성가대에서 다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성가대에서 봉사하다 보니 때로는 습관을 따라 봉사할 때도 있었는데 그 쉬는 기간이 전화위복이 되어 새로운 마음과 열심으로,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장로님이 성가대장으로 주일1부예배 성가대를 섬기면서 매 주일 새벽을 깨우고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직장의 일을 하면서 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주님의 일은 그 무엇이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일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율전 :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7단원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제31과) 말세란 무엇인가?

- **본문 :** 마태복음 24:42-44
- **요절 :**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 **찬송 :** 162장(새찬송가 175장), 172장(새찬송가 183장)

인류 역사에는 그 시작이 있었듯이 종말도 있으며, 또한 지금이야말로 그 종말에 가까이 다가선 말세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 편은 종말은 단지 기독교의 교리일 뿐 인류의 장래는 밝고 무한히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며, 다른 한 편은 비록 성경을 믿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라며 기독교의 주장에 수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무분별한 자연파괴와 기후변화, 핵무기, 인구문제와 식량난, 국가간 또는 민족간의 분쟁 등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예로 듭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항목 외에도 무질서와 방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상이 그 항목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오늘 공과에서 '말세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봄으로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1. 말세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은혜의 때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全) 기간을 교회시대라고 하며 또 말세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것이나(마 4:17),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행 2:17) 이미 그 때가 말세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도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가리켜 말세라고 말했습니다(벧전 1:5,20, 벧후 3:3, 고전 10:11).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말세이며,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보다 약 2천년이나 지난 시점인 점을 고려한다면 말세지말(末世之末)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세를 가리켜 신약시대 또는 교회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시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미 언약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점, 그리고 구약시대에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던 때와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된 점에서 말세를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고 하신 것은 말세의 성격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의 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헛되이 낭비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점에서 이전 시대 성도들보다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말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2~44)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고 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말세를 백년이나 천년의 긴 세월에 견주지 않으시고 매우 짧은 하룻밤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였으며 그 후 평생을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를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바로 인식하고 깨어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3. 말세란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하심으로 복음 전파와 종말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임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오순절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줄기차게 전 세계로 전파되어 왔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바쳐온 결과 그곳에서 정반대 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에도 이미 14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오늘에 와서는 천만 기독교인으로 부흥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오히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는 한국 교회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복음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만큼 우리 민족은 물론이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곱게 치장하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신부가 "신부 입장!"이란 사회자의 외침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대하듯이, 우리는 신랑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